

여성혐오의 실태 및 여성혐오 사례

목차

- I. 서론
 - II. 여성혐오의 의미와 헤게모니 비판
 - 1. 혐오표현의 의미
 - 2. 여성혐오 의미
 - 3. 우리나라 여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 헤게모니
 - 4.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남성들의 열등감 표출로써 여성혐오
 - 5. 여성계급 내부의 분화로 재생산되는 여성혐오
 - 6. 유리천장으로 표상되는 정치 계급적 여성혐오
 - III. 여성혐오에 대한 실태
 - 1. 설문으로 본 여성혐오에 대한 남녀 시각차
 - 2. 교육 교재에 있어서의 여성혐오
 - 3. 교실에서의 여성혐오
 - IV. 일상생활에서의 여성혐오 사례
 - 1. 국내 온라인 사이트의 여성혐오 표현(디씨인사이드, 네이버 뉴스 댓글, 일간베스트, 네이트 판)
 - 2. 드라마 속 여성혐오
 - 3. 영화 속 여성혐오
 - 4. 여성혐오의 온상이 된 1인 미디어
 - 5. 웹툰에서의 여성혐오
 - V. 여성혐오를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 1. 여성혐오와 페미니즘
 - 2. 남성 역차별에 대한 주장
 - 3. 문화실천을 통해 평등으로 나아가기
- * 참고문헌

I. 서론

비교적 젊은 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기 남성들이 최근 들어 보이는 여성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은, 이제까지의 성평등 제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아 가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남성들이 인터넷, SNS 등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나 비난과 조롱을 담은 여성혐오 현상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부근 노래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가 화장실에 잠복해 있으면서 남성이 들어오면 그냥 보내고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여성혐오 논쟁이 촉발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학의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톡방(단체채팅방)에서 동료 여학생들을 두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대화를 일상적으로 나눈 사실이 알려졌고, 비슷한 사건이 여러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여성혐오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즈음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2016년 6월에 만들어진 반(反)여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메갈리아를 지지하거나 그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몇몇 인사(음악인, 작가, 성우 등)가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18일 낮 12시36분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1층 편의점 옆 장모(57·여)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보행자 4명이 차와 충돌하고 매장 안 손님 2명이 파편에 맞거나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뒷바퀴가 걸려 빠져나오려고 액셀을 밟았는데 차가 갑자기 돌진해 건물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다”며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장 씨의 사고를 두고 성대결이 펼쳐졌다.

남성 이용자가 많은 한 커뮤니티에서는 “괜히 김여사라는 말이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여성 운전자? 끄덕끄덕”,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 여자는 아니지만 기막힌 사고는 대부분 여자가 냈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장 씨의 성별을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미숙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일반화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여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까지 보고 겪고 들은 운전사고는 대부분 남자 운전자”,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 운전자 사고가 더 빈번하다. 김여사는 억측”, “이런 반응도 여성 혐오”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성 운전자뿐 아니라 남성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여성 혐오 정서는 물론 최근의 것만은 아니다. 2000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여성 국회의원의 가시적 진출이 늘어나며, 5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수가 늘어나는 등 특히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담론이 온라인세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물론 1999년 소

위 군가산점제위헌 소송이 온라인상의 반페미니즘 담론을 격화시킨 것은 자명하다. 사이버 마초, 여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으로 명명되었던 1999년~2000년 경 온라인 반-여성주의 담론은 PC 통신 세대가 본격적으로 월드와이드웹 인터페이스 세계로 들어서면서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의 여성에 대한 비하 및 성차별적 표현들은 대체로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맥락 하에서 이해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0년부터 경찰청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신고와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월장사태는 특히 특정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 4월 웹진 <월장> 창간호에 실린 '도마 위의 예비역'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어 10일 만에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음은 물론, 웹진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 개개인에게 모욕과 비하,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제 논란 이후 안티-페미니즘 사이트, 안티-이대 사이트, 안티-여성부 사이트 등이 대거 구축되는 등 여성주의가 온라인상에서 남성의 적이 되는 것 역시 이 무렵이다. 이처럼 특히 군가산점제 논란 이후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특정 여성에 대한 비난, 여성부에 대한 비하 등 여성의 권익이나 평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공격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이와 관련된 정책적,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것을 저해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비난은 비단 여성주의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중이다. 2005년 '개똥녀'사건을 필두로 각종 '녀'들이 인터넷에서 명명되고 비난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온라인세계에서 집단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난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똥녀(2005), 강사녀(2006), 군삼녀(2007), 신상녀(2008), 루저녀(2009), 명품녀, 패륜녀, 지하철 반말녀(2010) 등 매년 새로운 '녀'가 등장했고, 이는 그 특정한 여성의 신상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물론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와 폭력적 낙인으로 고착되었다.

이러한 몇몇의 상징적 사건들과, 온라인상에 고착된 반여성주의적 정서구조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성별화 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특히 여성들의 공간은 가입부터 여성만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곳은 특정성별을 가입 제한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용자가 한쪽 성별에 쏠린 경우가 많다.

온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비하, 모욕, 차별적 표현들은 이렇게 성별화되어 존재하는 커뮤니티 상에서도, 혹은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익명화된 커뮤니티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규칙에 따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규제하는 경우는 다소 약화되어 나타나지만, 익명성을 근간으로 규제가 약한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화되어 나타난다. 무엇보다 현재 논란이 가속화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 안티-페미니즘 모임이 결집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2008년 남성연대 설립), 일간베스트 사이트(2009년 설립)의 문제가 사회 담론의 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때문이다. 특히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같은 경우는 여성성과 성적 차이 자체를 혐오하는 공간으로 문제 지점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혐오 논쟁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여성혐오의 실태 및 일상생활에서 여성혐오 사례를 통해 여성혐오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여성혐오의 의미와 헤게모니 비판

1. 혐오표현의 의미

국제사회의 논의와 시민사회·학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의 개념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혐오표현은 혐오를 표출하는 것인데, 혐오는 일시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이데올로기, 예컨대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자민족중심주의, 반유대주의, 백인우월주의, 성차별주의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혐오표현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혐오감과 구분되며, 부정적 의견표시부터 시작해서 소수자를 모욕·조롱·위협하는 것,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고취·선동하는 것 등이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된다. 셋째, 혐오표현은 표적집단인 소수자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선동(incitement)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일반청중들을 향해 ‘소수자를 차별하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법적 규제도 발달해있다. 국제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찾을 수 있으며, 몇몇 개별국가들에서도 혐오표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여성혐오 의미

일반적으로 혐오(嫌惡)란 어떤 것을 미워하는 감정을 일컫는데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자신을 해롭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고픈 감정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여성혐오’라는 말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해로운 존재이며 그들을 증오하는 것을 일컫는 것일까?

여성혐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먼저 여성혐오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성 혐오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개념의 일관성, 타 개념과의 상호 배타성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혐오의 정의가 다양하고 폭이 넓은 가운데, 우에노 치즈코는 그의 저서에서 여성혐오(misogyny)는 여성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여,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에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별이 원제 젠더 질서의 심층적 핵’이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성 멸시를 치즈코는 여성혐오라고 불렀다. 이렇게 본다면 가부장제 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이 여성혐오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포르노그래피, 카사노바, 창녀/성녀의 구분 등이 모두 이 여성혐오 개념과 관련된다.

한편 애덤스와 풀러(Adams and Fuller, 2006)는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증오, 멸시를 말하는데 여성을 남성의 소유, 이용이나 착취, 혹은 학대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전사회적으로 퍼져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대체로 성차별주의(sexism)과 함께 쓰이는 이 여성혐오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서 단지 병리적으로 여겨지는 여성에 대한 증오 뿐 아니라, “이미 몸에 깊이 밴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한다(Mclean & Maalsen, 2013).

또한 누스바움(2012)은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여성혐오는 대상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상화는 상대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상대의 감정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대상화된 사람은 오명과 낙인을 뒤집어쓰고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누스바움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상화의 개념은 먼저 도구적으로 대상을 개념화하는 것, 대상의 자율성을부인하는 것, 대상의 활력을 부인하는 것,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대상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사고팔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과 대상의 감정이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 등이었다. 포르노그래피적인 이미지, 신체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가장극적인 대상화의 형태이며, 강간 위협 역시 대상화와 관련된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여성혐오 발언이 대상화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3. 우리나라 여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 헤게모니

권력관계에서 성적 욕망은 가장 눈에 안 띄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많은 술책에 이용될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전략들을 위해 거점 또는 연결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까닭에 오히려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미셸 푸코 저, 이규현 譯, 『성의 역사1 : 삶의 의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위와 같이 성 담론과 권력의 밀착관계를 제시했다. 즉 성적인 욕망은 권력의 조직화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성의 담론들은 남성적인 권력과 지식 관계를 점차 발전시켰는데 이 과정은 남성들의 여성지배와 항상 연관되어 있었다.

여기서 여성의 신체는 정기적인 출산을 통해 인력(人力)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권력과 연관 되어있으며, 어머니로써의 이미지와 적합성을 지키기 위해 주의 깊게 감시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유교사회로 추의 무게가 남성에게 실려 있었는데,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 정절은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항목이다. 정절의 중요성은 설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심청전>에서 심청은 ‘효’를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고, <콩쥐팍쥐>의 콩쥐는 굶은일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이후 훌륭한 열녀로서 인정받는 모습 등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상(像)을 확인할 수 있다.

글뿐만 아니라 민요인 <아리랑>도 살펴보자. 남녀의 사랑관계에서 여성은 기다리만 하는 수동적 주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리랑>의 가사는 이렇다. ‘날 버리고 가시는 입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여성은 떠나가는 남성을 붙잡을 권리가 없었다. 바라보고 슬퍼하며 단순히 기다려야만 했다. 여성들에게 슬픔은 스스로 인내해야 할 몫이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되었다.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여 인내해야 ‘진정한 여성’의 표본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가부장제라는 권력 하에서 여성들은 표준화된 여성상을 강요받으며 수동적이고 남성의 대를 잇는 수단, 소유물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혹자는 여성혐오를 두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관리를 위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공고히 쥐고 있었다. 박정희 주도의 남성 지배계급은 지배력 행사를

위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주의를 강화시키고 여성 업속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므로 여성혐오가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는 자연주의적 시각은 헤게모니를 쥔 이데올로기 지배계급의 정치적 의도를 놓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완벽히 장악했을 때는 여성혐오 담론이 대중의 동의하에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확산되지 못했다. 하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억압받던 여성 피지배계층이 기존 헤게모니에 반기를 들며, 성평등 담론의 헤게모니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성평등 담론은 억압된 여성계급, 동성애자 등의 동의를 얻으며 점차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한국사회에서 설블리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주장했다가는 반(反)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당하기 십상이다. 대선 후보가 노골적으로 여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돼지발정제’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에서 ‘친구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도록, 최음제 역할을 하는 돼지발정제를 구해다줬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여성 단체들은 성폭력을 모의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정책 공약 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외에도 홍준표 후보는 “설거지는 하늘이 정한 여자의 일”이라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 뒤에는 성평등 담론이 헤게모니를 쥐려하자, 위기를 느낀 남성 중심의 통치계급이 전통적인 성별 위계에 금이 가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가부장적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숨어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 담론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4.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남성들의 열등감 표출로써 여성혐오

기존의 젠더 관련 논의는 남성중심적 지식체계와 그 속에서 타자화된 여성들의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단일하게 보이는 남성성이 사실은 헤게모니를 쥔 남성성의 모습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를 주장한 코넬의 연구에서는 제도적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남성을 뜻하는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말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젠더 관계 패턴에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팔루디는 헤게모니를 획득한 남성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열등감과 위기감이 방향을 틀어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된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1998년 IMF이후 경제 위기와 대량실업을 맞아 가부장적 남성성이 위기를 맞고, 여성의 사회진출, 극심한 경쟁 등을 경험한 남성들이 그 표출의 하나로 여성혐오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혐오는 이러한 맥락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남성유대 형성의 조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한 예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둘러싼 인식과 규범 속에 불만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여성상을 내부에서 기획한다. 그들은 성별로 차별하는 사회의 불평등한 지점을 과격한 언어로 표현하지만 그 내부는 사회구조에 대한 화살을 여성에게 겨누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해당 커뮤니티의 유저들은 강한 남성으로 대표되는 남성상에 스스로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불만을 가진 이

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에 대한 강도 높은 폭력을 통해 교묘한 방식으로 성 차별을 정당화하고 여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표현한다. 즉,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계급적 여성혐오는 헤게모니를 획득한 남성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자기혐오와 열등감을 바탕으로 두고 발생한 측면이 존재한다.

5. 여성계급 내부의 분화로 재생산되는 여성혐오

정치계급적·성계급적 여성혐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분명 남성이지만 일부 여성들 또한 여성혐오를 생산·소비한다. 알튀세가 말한 주체구성론의 입장에서 대중매체는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 이데올로기의 전달체이다. 여성들은 남성지배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자기도 모르게 남성적 주체가 되어 간다. 물론 알튀세를 비롯한 구조주의 문화연구는 소비주체의 능동성을 간과하는 ‘반인간주의’라는 비판을 받지만, 분명 일부 여성들이 대중매체에 대한 지배적-헤게모니적 해독으로 남성적 주체가 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산된 것이 바로 ‘나빼쌍(나만 빼고 쌍년) 논리’이다. 나빼쌍이란 단어는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편견에 동조해 개념 있는 척 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나빼쌍 담론을 생산하는 여성들은 ‘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비용을 반반씩 내는데, 다른 여자들은 밥도 얻어먹고 스타벅스 커피도 얻어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다른 일반 여성들과 구분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계급 내부의 분화가 일어난다.

나빼쌍 논리는 ‘선량한 다수 남성’ 논리와 연결된다. 그들은 ‘대부분의 선량한 남성들은 여성혐오와 관계가 없다’는 남성들의 여성혐오 방어 논리에 동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특별히 예민하고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로 범주화시킨다. 나빼쌍을 말하는 여성들은 현실에서 여성혐오를 겪더라도 자각하지 못하거나, 일부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돌발행동이므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스스로를 개념 있는 특별한 여성으로 인식하며 다른 여성들과 분리시킨다.

문제는 나빼쌍을 말하는 여성들 또한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의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두 이데올로기의 하에서 이들은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자들을 이해할 줄 아는 여자’의 주체로 학습된다.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위축의 반복을 통해 여성 혐오를 내면화한다. 그 결과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여성들이 생겨나며 이로써 (일부)여성 또한 여성혐오의 재생산 주체가 된다.

6. 유리천장으로 표상되는 정치 계급적 여성혐오

‘유리천장’이란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로,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함축해 보여주는 용어이다.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는 헤게모니를 획득한 남성들의 정치적 지위 유지를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오랫동안 굳어졌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 집단의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왔다. 이 시도는 ‘워킹맘’, ‘슈퍼우먼’ 등의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담론이 유포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헤게모니를 획득한 남성중심 권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위협을 느낀다. 기존의 남성중심 권력은 ‘여자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성보다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등의 논리를 여성이라는 성별에 국한한다. 뿐만 아니라 육아를 여성의

일로 한정시켜 '여성은 업무를 지속하는데 장애가 있다'며 사회진출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즉 구조의 문제를 성별의 문제로 환원시켜 남성이 여성을 평가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결국 헤게모니를 쥐어 왔던 남성 정치계급의 권력 하에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남성이 성을 소비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그들이 가진 위계와 지위를 보여준다. 이렇게 깊게 뿌리박힌 남녀간 계급구조 하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소비된다. 직장 내에서 남자 상사가 여성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사건, 문단 내 성폭력 등 다양한 곳에서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Ⅲ. 여성혐오에 대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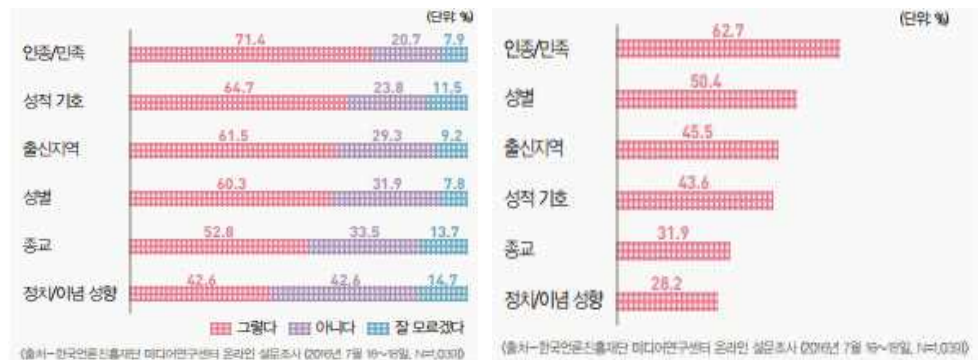
1. 설문으로 본 여성혐오에 대한 남녀 시각차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소수자/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 그리고 혐오 표현과 관련해 요즘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여성혐오와 관련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20~50대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16년 7월 27일 발간한 <Media Issue> 2권7호에 실었다.

1. 성차별적 표현은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수자/약자의 기준유형을 인종/민족, 성별, 종교, 성적 기호(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정치적/이념적 성향, 출신지역, 이렇게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각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혐오 표현이라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차별적 표현 대상에 따른 혐오표현 인식 정도><차별적 표현 대상에 따른 혐오표현 규제 동의 정도>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0.3%로, 6개 유형 중 동의 비율로 보면 순위는 4위였으며, 수치상으로는 성적 기호, 출신 지역과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을 포함해서 대체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변의 특성에 기인한 차별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와 동일한 6개 소수자/약자를 기준으로 혐오 표현 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소수자/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앞의 결과와는 달리 이번에는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6개 유형 중 인종/민족 다음의 순위를 차지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4%가 성별에 근거한 차별적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이념 성향에 근거한 차별적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28.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2.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

여성혐오와 관련해서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한 뒤 동의 여부를 물었다.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22.1%, 약간 동의 52.5%). 이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여성혐오는 실체가 없으며 언론에 의해 과다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용어이다’에 대해서는 그보다 24.2%포인트 적은 50.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동의 11.6%, 약간 동의 38.8%). 두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여성혐오가 언론 등이 조장한 인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적 문제라는데 대체로 동의한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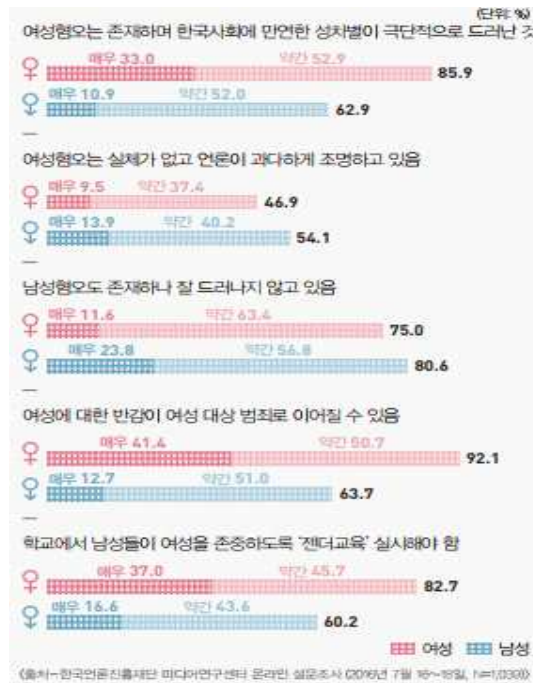
이외에도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에서 남성들이 여

성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젠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모두 70%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우리 국민은 여성혐오, 나아가 성별에 근거한 차별적 표현의 문제를 비교적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3. 성별에 따른 여성혐오 문제 인식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구분해서 분석해 본 결과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성별에 따른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 비교>



여성혐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비율에서는 여성이 85.9%에 달한 데 비해, 남성은 그보다 23.0%포인트나 적은 62.9% 수준이었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만을 따로 떼서 비교하면, 여성은 33.0%, 남성은 10.9%로 여성이 세 배 정도 많았다. 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성 대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남성(63.7%)에 비해 여성 응답자(92.1%)가 28.4%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중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을 비교하면 12.7% 대 41.4%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존중하도록 젠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남성은 60.2%였으나, 여성은 그보다 22.5%포인트 더 많은 82.7%가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37.0%로 남성(16.6%)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전체 47페이지 중 1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여성혐오의 실태 및 여성혐오 사례(여성혐오 의미 설문조사,
디씨인사이드,강남역 살인사건, 일간베스트, 페미니즘,
유리천장, 가부장제, 드라마 영화 웹툰 여성혐오)

저작시기 : 2017-11

등록시기 : 2017-11-10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사회과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20061341/>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